

【주제발표 Ⅲ】

## 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현황

-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중심으로 -

신영숙 · 이금옥

농 촌 진 흥 청



## 1. 들어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령화와 고용정책’에 관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인구학적 고령화 속도가 사상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빨리 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00년 한국의 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터키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나, 2050년엔 무려 67%로 상승해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와 함께 노인부양비율이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인의 자살률이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데, 이는 과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식들도 자신을 부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아무 대비를 하지 않았고, 자녀들은 사회에 부양책임을 돌리려고 하고 있지만 사회 인프라는 거의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4년에 실시한 ‘노인생활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노인중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를 했다는 비율은 28.3%에 불과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장남 또는 며느리에게 도움을 청하겠다는 노인이 42.7%, 배우자가 없는 노인 절반은 ‘건강이 어려워지면 자녀와 살고 싶다’고 답했다. 노인은 여전히 자녀에게 의지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 중 7.0%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04년 현재 8.7%로 증가되었고,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에 비해 고령화가 더욱 빨라 65세 이상 인구가 15.7%를 넘어서고 있어 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결국 농촌의 고령화는 농지의 황폐화는 물론 농촌지역사회의 침체를 불러와 농촌사회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21세기에 인류를 괴롭히는 10대질병중의 하나로 우울증을 꼽고 있는데, 2020년에는 우울증이 심장병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질병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으며 실제 2003년 우리나라 60대 이상 노인 우울증 진료환자가 11만 340만 명으로 2000년보다 8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을 고령자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도시 은퇴자들과 농촌노인들을 농촌지역사회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농촌지역사회 활성화는 물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생산적 활동 기반 조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 2. 농촌노인의 현황 및 문제점

UN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7%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이상일 때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20세기

를 전후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는 70년대에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일본은 7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04년 현재 고령화 비율이 8.7%이며,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이다. 노인인구 7%에서 20%로 증가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일본은 36년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26년으로 2026년에 일본, 한국 모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한·일의 고령화 추세 비교 >

고령인구 비율 국가	도달년도			증가 소요 연수		65세 이상 인구구성비 (‘04)
	7%	14%	20%	7→14%, 14→20%		
한 국	2000	2018	2026	18	8	8.7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19.6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화비율은 도시의 6.7%보다도 높은 15.7%로 이미 고령사회이며 진행속도도 빨라 국가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구 분		농 가	농 촌	도 시	전 국
65세 이상 인구비율(%)	‘03	27.8	15.0	6.3	8.1
	‘04	29.4	15.7	6.7	8.7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세계 전체 국가 중 1/3수준이며, 사실 국가에 따라 평균수명이 짧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전혀 안되는 나라도 많은데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된 것은 한편으로는 반가운 일이나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비교적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75세 이상 고령노인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건강상의 장애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수도 크게 증가되고 있다.

<평균수명 및 고령인구의 증가 추이>

구 분	'60	'70	'80	'90	'00	'02	'10	'20
평균수명	-	62.3	66.2	71.7	75.9	77.7 (‘05)	78.8	80.7
65세이상 (구성비, %)	726 (2.9)	991 (3.1)	1,456 (3.8)	2,195 (5.1)	3,394 (7.2)	3,772 (7.9)	5,302 (10.7)	7,667 (15.1)
75세 이상 (구성비, %)	111 (0.44)	150 (0.47)	228 (0.60)	393 (0.92)	1,091 (2.32)	1,210 (2.54)	1,996 (4.02)	3,193 (6.30)

2004년 보건복지부의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결과에서는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회적 관심사’는 49.4%가 노후소득 지원이고, 23.6%는 취업 지원, 16.8%는 요양보호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에 대한 일자리 마련과 사회참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생활을 준비한 노인비율은 28.3%에 불과했으며,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에 대해서는 국가(40.9%), 스스로 마련(40.2%), 나머지는 가족과 자녀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0.9%의 노인이 1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전체노인의 13.4%가 수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이외의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한 노인의 증가는 경제활동 욕구증대를, 고령노인 증가는 장기요양보호 수요를, 고학력과 경제력이 있는 노인의 증대는 사회참여 욕구를 증가시키게 되므로 노인복지 수요를 질적인 변화와 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 3. 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의 필요성

산업사회의 발전과 농업소득의 저하 등으로 생산가능인구인 젊은층의 이농이 심화됨에 따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의 건강 및 재정의 악화로 일상생활에 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는 현재의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노인, 현재 농업종사자 뿐만 아니라 미래에 농업부문에 참여의사가 있는 도시주민이나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고령친화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고령친화농업은 노인을 소비자로 상정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농산품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것과 노인 스스로

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고령친화 농산품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농업부문에서 건강한 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복지비용을 줄이고, 영농활동을 통한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생산적 사회참여를 통하여 자립과 자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적정 수준의 근로활동을 통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보건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도시자본의 농촌투자를 촉진하고, 도시의 유희인력을 농업 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공동화문제 해결은 물론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을 위해서 노인들에게 알맞은 일거리 창출과 생활환경 정비, 건강관리 및 전통생활기술 전수, 학습 및 사회활동을 위한 학습 강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2005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 사업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 4. 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을 위한 건강장수마을 육성

##### 가.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으로 기반조성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사회 유지발전을 위해 농촌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노인의 지역사회활동 촉진과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 등을 위해 '93년부터 '98년까지 마을당 3년간 2차에 걸쳐 비 예산사업으로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을 시범 육성하였고, '99년부터는 마을당 3년간 매년 200만원씩 지원하여 219개의 마을을 중심으로 전래솬씨 발굴 활용 및 전승기반 조성, 공동부업 및 봉사활동,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교양 및 건강관리 교육 등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따른 기반조성을 하였다.

이 사업의 성과로는 첫째, 자주적인 노인회 운영으로 개인 생활 및 마을의 활력화에 기여하였으며, 둘째, 잊혀져가는 노인 보유 솬씨의 발굴 계승은 물론 전통문화 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노인솬씨 향상에 기여하였다. 셋째는 감자, 고구마, 깨 등 비교적 노동력이 덜 필요하고 재배가 쉬운 작목의 공동경작이나 장 담그기, 전통 옛 제조 등 노인보유 기술을 활용한 부업활동을 지원하여 평균소득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그 결과 전국공예품경진대회에서 특선 수상, 우수노인회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으며,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사업 참석자 95% 이상이 모든 활동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노인활동 사례집인 '옛 솬씨와 함께 노년을 보람 있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전통을 잇는 손길', '농촌에 전해지는 옛 소리' 등의 책자를 발간 배부하는 등

홍보함으로써 노인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업성과가 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 사업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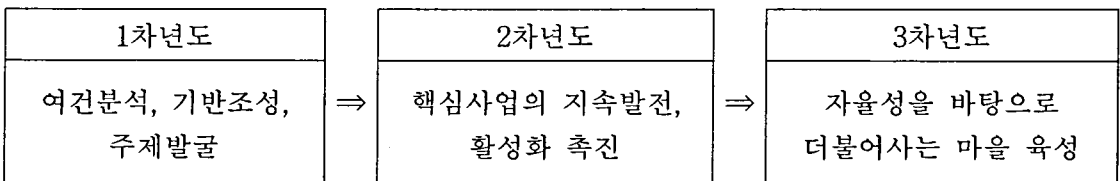
#### 나.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지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은 농촌노인에게 농업과 전통문화 영역에서 알맞은 일거리를 발굴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환경 정비,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 등 체계적 실천으로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새로운 장수문화를 정립하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축적된 생활지도 경험을 기반으로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 문제를 적극 대응하여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생활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은 국내외 자료 수집을 통해 사업내용의 큰 틀을 정립하고 2005년 100개소를 시작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2010년까지 시군 당 7~8개소씩 총 800~1,2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소당 3년간, 1억 4천 여 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추진 방향은 첫째, 생산적인 일거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감을 제공하여 보람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도모 등 농촌노인의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 지식, 기술을 소득자원화로 연계한다. 둘째, 건강관리, 학습 및 사회활동, 환경 정비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고령화 대책을 시범 운영한다. 셋째, 기존의 노인생활지도마을, 향토음식 맥 잇기 등 농촌생활자원분야 시범지역을 지원하여 축적된 노하우 활용으로 사업효과를 거양한다. 다섯째, 도시은퇴자, 소모임 등 도·농 교류 활성화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을 강화한다. 여섯째, 건강한 노인, 여성조직체 협력으로 거동 불편한 노인의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일곱째, 마을별 특성을 고려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연차별 추진계획(예시)



영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소득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자랑거리 주제 발굴</li> <li>○ 일감사업장 시설 설치 및 상품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감사업장 시설 및 기구 보완</li> <li>○ 제품의 차별화, 고품질화, 다양화</li> <li>- 포장 디자인 개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 마케팅 강화</li> <li>○ 제품 브랜드화</li> <li>- 마을 이미지, 로고 활용</li> </ul>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검진</li> <li>- 보건소 등 협조</li> <li>○ 운동프로그램 운영</li> <li>- 전문 강사 활용, 게이트볼장 등 운동시설 설치</li> <li>○ 영양 및 노년기 식생활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동프로그램 운영</li> <li>- 건강관리시설 설치</li> <li>- 전문 강사 활용</li> <li>○ 개인별 건강관리 실천 사례 발표회 개최</li> <li>○ 노년기 영양관리 및 조리법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간 건강프로그램 교류 행사 개최</li> <li>○ 건강이벤트 개최 등 자율적인 실천동기 부여</li> <li>- 게이트볼 대회 개최 등</li> <li>- 우수 건강관리자 선발</li> </ul>
학습·사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활동의 강화</li> <li>- 생활매모, 일기쓰기, 한자 등</li> <li>○ 노인회 활동 활성화</li> <li>- 취미, 교양, 봉사활동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긍심 부여활동</li> <li>- 어린이, 도시민 대상 농업, 조리, 한자, 서예, 예절강사로 활동</li> <li>○ 예비 미래노인 프로그램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사회활동 프로그램 운영</li> <li>- 미술, 음악, 한자, 서예 등 동아리 활동</li> <li>- 전시회, 발표회 등 개최</li> </ul>
환경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에게 안전한 마을 환경 조성</li> <li>- 산책로, 휴식공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과 농촌다움이 소득화로 연계되는 마을 만들기</li> <li>- 향토수, 유실수 심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에게 알맞은 가정생활 공간정비 권장</li> <li>- 현관, 화장실, 욕실, 침실의 평면화, 동선 절약 등</li> <li>- 보조대 및 여유공간 설치 등</li> </ul>

따라서 사업초기에는 전문가 컨설팅 및 지도기관, 마을주민이 합심하여 마을여건 분석, 인적·물적 자원 등 가용자원 발굴, 강점, 약점, 기회 및 위협요인(SWOT분석)을 분석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가, 학계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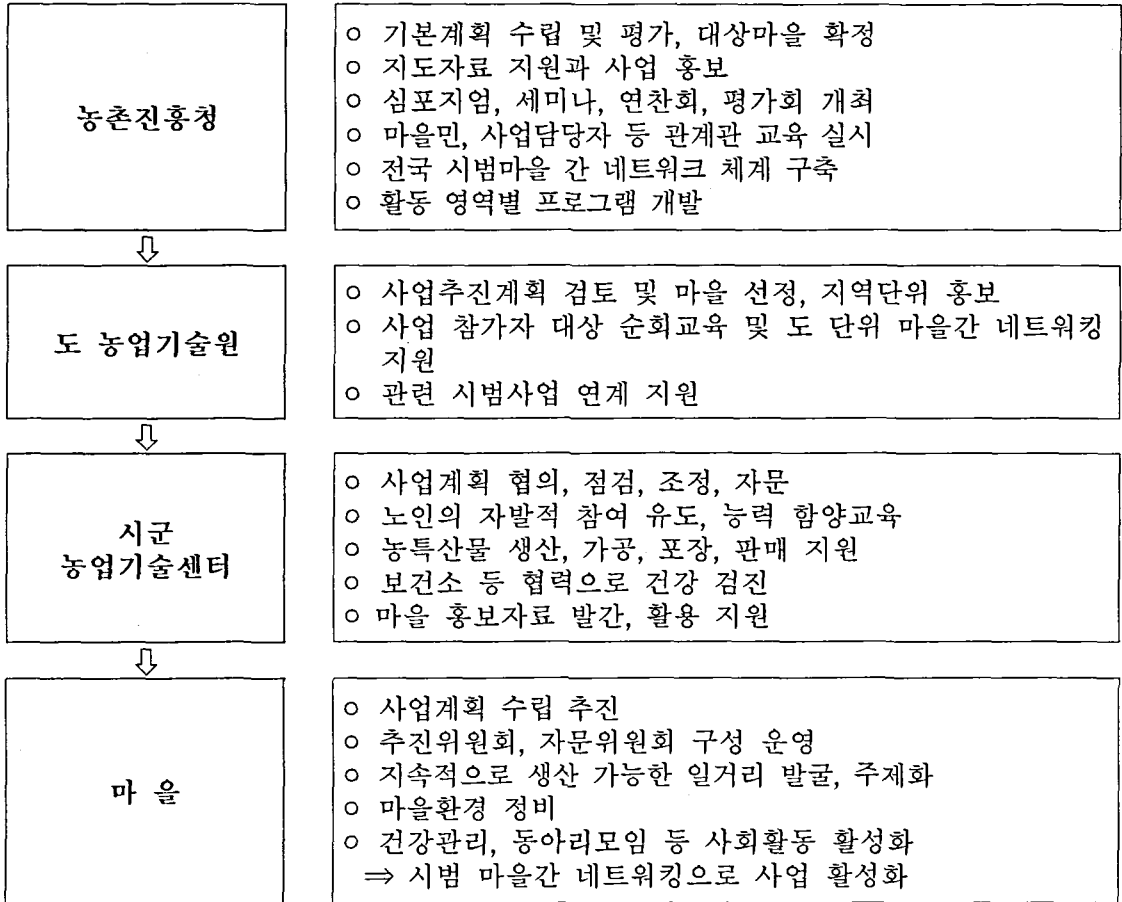


사업추진 주체는 농촌노인을 포함한 마을주민이 되어야 하며, 농촌지도기관에서는 마을주민들의 자율적 참여기반을 조성하고, 사업성과 거양을 위해 연도별 우선순위 사업을 수립,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소득활동,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등 4영역이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마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영역별 활동 내용 예시>

구 분	활 동 내 용
소득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장 담그기(된장, 간장, 고추장 등)</li> <li>○ 공동 학습포 운영(고구마, 감자, 무 등), 휴경지 공동경작, 벼농사 공동재배, 유실수 재배</li> <li>○ 전통공예품 제작, 짚풀공예 제작 및 문화전수, 새끼꼬기와 싸리 공예품 제작, 너와집 복원관리</li> <li>○ 토종가축 기르기(소, 흑염소, 오리 등)</li> <li>○ 오미자 재배, 뽕나물·매실나무 식재, 표고버섯 생산, 묘목재배, 도라지 재배</li> <li>○ 쌀엿·뽕잎엿 상품화, 과수 가공, 감잎차 가공, 지역 전통주 제조</li> </ul>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황토 찜질방, 체력 단련실)</li> <li>○ 건강교육프로그램 운영(수지침, 발 맛사지, 건강관리 교육, 흙놀이를 통한 노인치매 예방, 노인건강상담 지원)</li> <li>○ 공동 취미과제 활동(풍물놀이방 운영, 레크리에이션 보급활동, 게이트볼 동호회 활동 등)</li> <li>○ 농촌문화생활관 설치, 요리교실 운영</li> </ul>
학습·사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문화전승활동(풍물교육, 지역 무형문화 보급활동 등) 전통솜씨 계승활동(짚풀공예, 목공예, 농악·민속놀이, 고전무용 전수활동 등), 향토유물관 전시</li> <li>○ 노인교실 운영(노인교양강좌, 농악, 전통공예, 건강체조, 한글 교육, 우리 가락 익히기 교육, 천연염색 실습 등)</li> <li>○ 현지 연찬 교육 실시(문화유적지 탐방, 선진지 견학 등),</li> <li>○ 생활원예(토피어리, 분갈이 등) 실시, 농작업 보조구 실습</li> <li>○ 취미교실(시조, 서예 등), 어린이 충효교실, 시니어 교양 강좌, 노인대학 운영</li> </ul>
환경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공동쉼터 조성, 유원지 정화 봉사활동, 꽃길 조성, 마을 하수구 정화, 재활용품 분리수거, 원예교실 운영</li> </ul>

<농촌진흥기관 및 마을의 역할>



사업이 3년간 이루어지므로 연차별 또는 사업추진과정별로 반드시 평가하여 사업내용, 추진방법, 사업비 등을 조정하고 피드백 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또한 도시노인회, 소모임 등 도농교류를 통해 도시 은퇴자의 정착을 유도하고, 특히 농촌에는 독거노인가구의 증가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건강한 노인이나 여성조직체 회원과의 협력으로 노인요양 서비스 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며, 활동사례 발표회 및 전시회 등을 통해 정보교환은 물론 홍보 마케팅에 주력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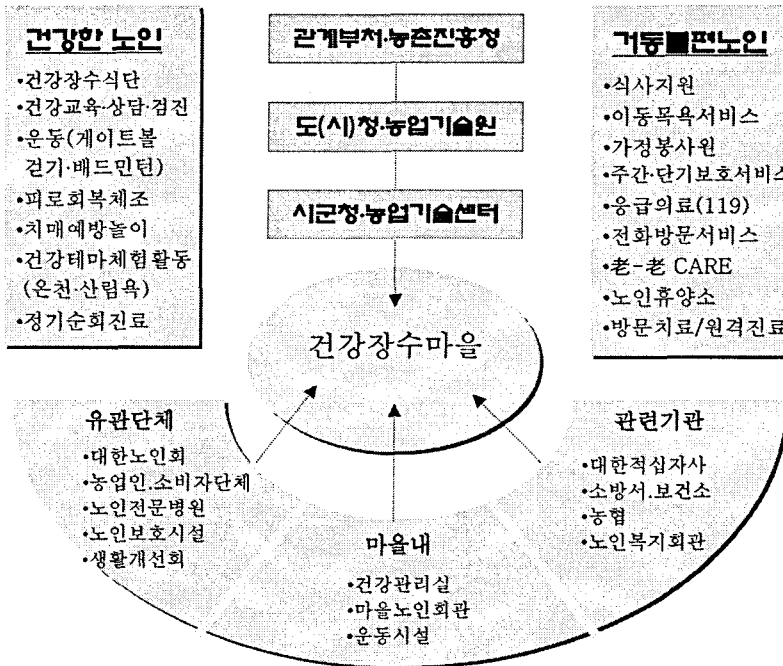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에서는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전국 농촌생활지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 개최는 물론, 마을 지도자교육, 전문가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각종 언론 및 농산어촌체험박람회 등에도 참가하여 사업홍보에 주력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추진 매뉴얼 제작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사업담당자 워크숍과 전문가 순회 지원은 물론 평가 회를 개최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다. 농촌건강장수마을 건강관리 프로그램

건강관리는 장수하기 위한 주요 내용으로서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습관화 하는 게 중요하며 결국은 의료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중앙 정부와 함께 지역사회, 학계, 건강·보건·의료전문가 등 지역공동체의 체계적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거양하고자 한다. 농촌진흥청, 9개도 농업기술원, 160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지도 인력(6,720명)을 총 동원하고 기관별, 마을별 역할을 분담하며 농촌자원개발연구소의 연구 결과 적용과 장수마을 프로그램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농촌진흥청 산하 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 등 여성농업인 단체와 농촌지도자회·4H회, 농업인단체를 마을에서 협력의 주체로 적극 활용하고 보건복지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 대한노인회 등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마을로 육성되기를 기대한다.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노인보호 안전망 구축으로  
일과 운동·의료가 조화를 이루는 건강생활 지원**



[그림 : 농촌건강장수마을 건강관리 프로그램]

## 5. 외국의 농산어촌 고령자대책

### 가. 일 본

일본의 농촌고령자에 대한 지원근거는 1995년에 법률로 규정한 고령사회대책기본법, 고령자사회대책강령, 식료·농업·농촌기본법 등을 들 수 있으며, 농산어촌 고령자에 대한 기본 사고는 도시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풍부한 자연환경과 고령자에게 적합한 취업과 활동의 장이 비교적 많다는 특징을 살려 고령자가 현역으로 활동함으로써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농산어촌 고령자대책의 방향은 첫째, 고령자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활약의 장을 설정하는 것으로 간단한 작업의 분담이나 적과 등 숙련된 기술을 활용한 생산 활동,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젊은 세대에 전수하거나 도시주민에 대한 향토요리법 지도 등 지역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둘째, 생활환경 정비로 고령자가 생활하기 편리한 주택 및 시설 정비, 마을도로 정비, 안전하고 윤택한 지역 환경을 정비하며, 셋째, 상부상조하는 지역사회 구축으로 청장년기부터 생애설계, 부양, 경영이양 등의 가족합의 등 고령자의 자립 촉진과 고령자에게 말 걸기 운동, 가사도우미 양성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추진체계는 각 지역의 특성, 주민의 사고방식 등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가는 지역주민과 관계기관·단체가 연대하여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농촌노인과 관련한 지역농업 발전대책으로는 촌락영농조직의 구축, 공동작업으로 일손부족 해결, 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경량의 간단한 농작물의 도입 및 보급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생애현역’으로서 주체적인 삶의 보람을 찾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 농업인은 농업생산 및 지역사회 활동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먼저, 농업생산 활동에서 노령 농업인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로는 ① 기간적 농업인이 꺼려하는 경작업 분담 ② 숙달된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작업 분담 ③ 다품목 소량생산의 고부가가치형 작물생산 ④ 전통작물 생산 ⑤ 친환경 농산물 생산 ⑥ 농산물 및 특산품 가공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에서 농촌노인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로는 ① 농작물 재배기술 지도 ② 생활기술 지도 ③ 전통문화 계승 ④ 농산어촌의 특성을 살리는 생애교육 ⑤ 귀농 및 신규 취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일본은 농촌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술 등을 사회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영농부문에서의 노인 지원으로 ① 경

운 등의 중노동작업의 지원 ② 생산물의 출하, 판매 지원 ③ 고령자 적합 농기계 및 농기구 개발 ④ 고령자의 체력 등을 고려한 재배법 확립 ⑤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는 영농교육 등이 있다.

또 일본은 농협에서 농촌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건강한 노인을 위한 대책으로는 ‘고령자생활충실활동’과 고령자생활원조활동’이 있다.

먼저 고령자 생활충실활동으로는 ① 마음의 풍요로움을 높이는 활동 ② 고령자의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 ③ 삶의 즐거움을 고취시키기 위한 활동 ④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 있다.

마음의 풍요로움을 높이는 활동으로는 생활교실, 취미·창작교실 등의 문화활동, 세미나 이벤트 개최, 각종 모임이나 그룹 활동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는 고령자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세대교류 및 차세대 활동에 지혜를 제공하고, 생활의 즐거움인 촌락농장이나 농원 만들기를 장려하는 것이 있다.

또한 삶의 즐거움을 고취시키기 위한 활동으로는 농산물 자급운동을 하고, 새벽시장 및 야시장의 농산물 판매소 운영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으로는 건강검진 활동의 추진 및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각 지역의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건강교실 및 건강상담소를 개설하며, 노령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균형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다.

그리고 고령자 생활원조 활동으로는 고령자의 생활상담과 건강진단 및 식생활개선운동, 고령자가 안심하고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지역 만들기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간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홈헬프 서비스, 단기 입소생활 간호, 데이 서비스 사업, 식사 서비스, 말동무 등의 사업이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원예복지가 실버농업의 주요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데, 원예복지란 꽃이나 채소 재배를 통해 심심의 긴장을 해소하고, 삶의 보람이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거나 병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농촌노인들이 원예복지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원예 지도요원으로 참여하거나 삶의 보람과 건강증진을 위해 원예를 하는 사람으로 참여하고 있다.

## 나. 미 국

미국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국가차원의 사회보험제도(Social Insurance System), 건강관리 프로그램, 영양관리 프로그램과 공공부조제도(Public Benefits), 공공주택(Public Housing)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지도사업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은 ① 영양교육과 농촌노인

(Nutrition Education and Rural Elderly) 프로그램으로 노인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영양, 생활습관, 사회적 유대 유지를 위해 신문을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다. ② 에너지 교육(Energy Education) 프로그램으로 농촌노인들에게 에너지 보존을 위한 주택개량방법, 태양열 등 자연을 이용한 난방과 에너지 이용기술 등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③ Building Bridge 프로그램으로 세대간 유대 프로그램인데, 아이들과 지역사회 내에 있는 노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④ Seniors CAN 프로그램은 노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고 점검하여 자신의 생활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다. 예를 들어 식품에 붙여진 라벨을 읽고 기초적인 영양에 대해 토론하기, 과일과 같은 건강식품 샘플 체험하기, 배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식료품 상점을 둘러보거나 전화주문 잘하기, 냉장고 온도 관리방법 실습하기 등이 있다.

그 외 노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Home Modification 프로그램, 신체장애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 매일 식사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원되는 프로그램인 Meals On Wheels 프로그램, 다른 노인과 함께 친근감 있는 분위기에서 같이 식사하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인 Congregate Meal 프로그램과 은퇴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이 있다.

#### 다. 유럽(EU)

EU에서는 고령노동자가 퇴직을 미루도록 충분한 고숙련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알선하고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하는 등 정년 퇴직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노인부양을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청년의 직업 활동 모델과 새로운 유형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노인의 물리적 심리적 차원의 자율성 상실 위기를 예방하는 정책 개발 등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주간 보호기관 설립, 양육휴가와 같이 노인기 부모를 부양할 경우 부양휴가를 정책화하는 등의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 6.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을 실시하여 예측되는 성과

장수마을 사업은 경제·공동체 활동을 통해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야기되는 가족 전담의 노인 부양문제를 정부와 지역사회가 나누어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가

족이 떠난 자리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마을로 만들고자 한다.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공동체를 다시 부활시키고자 함인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성과로는 마을주민의 농촌생활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2003년도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조사결과 생활만족도가 34.4%인 것을 39.4%로 5% 정도 향상하고자 한다.

일하기 원하는 건강한 노인에게는 마을의 자랑거리를 주제화·생산화 하여 일거리로 발굴, 소득과 연계하여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노인 각자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닌 여럿이 모여서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활기 있는 삶을 살코자 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통기술을 활용한 활동에 있어서는 사장되어가는 보유기술을 후계세대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의 부가가치 향상도 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5~10년 후의 사업성과를 전망해 보면 농촌사회에서 노후생활의 안정화로 생산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따라서 건강한 노인·활동하는 노인·당당하게 늙어가는 독립적인 노인상을 구현하고자 한다. 노인 부양문제를 완화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분위기 확산으로 노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

## 7. 금후계획

지역 내 직종별 단체, 종교단체, 봉사단체등 각종 단체를 활용한 노인의 복지서비스 공급체계와 노인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독거노인, 거동불편노인의 보호 체계가 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인봉사의 체계적인 양성과 마을단위의 농촌여성과 건강한 노인을 조직화하여 자조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 8. 결 론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농촌노인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농촌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농촌진흥청의 의지가 담긴 사업이다. 농촌노인에게 농촌다운 환경, 건강한 식생활, 개인역할 확립, 지역사회활동 참여 등 농촌지도사업 차원의 예방적이고도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OECD 국가에서는 한때 근로자의 정년을 앞당겼다가 노인문제 해결 등을 위해 다시 정년을 늘리거나 일거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년 없는 일자리 갖기, 지역생산식품을 활용한 식생활 영위, 노인회 활동 참여 지원 등 인간적 교류를 통한 건강한 생활을 창출하고 마을길 산보, 게이트볼 등 운동시설,

노래 부르기, 봉사활동 등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여가활동은 물론, 노인에 맞는 일감 찾기, 전통생활기술이나 솜씨 발굴 등으로 생산적인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노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의식 향상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마을과 농촌지도기관은 물론 관련기관·단체와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예비 노인세대를 포함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 실시하도록 유도하며, 지역사회내의 농촌여성이나 건강한 노인을 중심으로 자조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를 보살펴줄 수 있는 노인봉사요원 양성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농촌사회는 대부분 노인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독거노인으로써 농촌고령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가족만이 분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국가에서 분담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을 비롯하여 농촌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해 장기적인 대책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과제 발굴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농촌진흥청(2005), 농촌건강장수마을 지도자 교육교재
- 농촌진흥청(2004), 일본의 농산어촌 고령자대책
-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 경상북도농업기술원(2005), 2005년 생활기술사업 연찬회 자료
- 박상철(2005), 강원도 장수지역 실태조사 연구
- 농촌진흥청(2003), 농촌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방안 세미나 자료
- 동아일보(2005. 1. 9일자), 임금-고용 시스템 바뀌 노인취업 늘려야
- 경향신문('05. 1. 10일자), 노인 일자리가 필요한 이유
- 한겨레신문('05. 2. 3일자), 농촌장수마을
- 중앙일보('05. 5. 20일자), 노인자살급증 OECD 1위